지식경제부	보도자료	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://www.mke.go.kr
2012년 6월 28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자료문의 : 소프트웨어산업과 김도균 과장(2110-5121), 권현기 사무관(4767)		

「SW기술자 신고제도」 기술자 등급 폐지, 경력관리 유지로 개선

- 경력 관리에 있어 수수료 인하 등 신고자 위주의 제도로 개편 -

□ 소프트웨어(SW) 기술자 신고제가 대폭 개선되어 새로운 경력관리 제도로 거듭날 전망이다.

□ SW기술자 신고제도는 SW기술자가 자신의 경력, 학력, 자격 등을 경력관리기관인 한국SW산업협회에 신고하면 이를 바탕으로 산정된 등급과 경력사항 등이 기재된 증명서를 발급받는 제도다.

* SW기술자 등급제 : SW기술자 능력의 객관적 인증을 위해 '08년 제도화(자격증·경력 등을 감안하여 등급 부여)

□ 2008년 도입된 이후 SW기술자 신뢰성 제고 등 긍정적 기여를 해왔으나,

○ SW기술자 능력에 대한 제도화된 등급분류 기준의 문제점, 경력증빙 곤란시 경력이 삭감되어 등급 산정시 불이익을 받는 점, 경력입증 절차의 번거로움, 경력등록 및 증명서 발급 등을 위한 수수료 부담 등 때문에 도입 이후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회의적인 의견도 존재했다.

□ 이에 정부는 SW기업, 발주기관, 개발자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제도 존속여부 및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했으며,

○ 그 결과 현행 제도의 등급관리 기능은 등급제 폐지* 결정에 따라 폐지하되, 경력관리 기능은 대폭 개선하여 지속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.

* 제도화된 등급분류 기준으로 실무능력을 갖춘 인력에게 불이익이 초래되어 SW기술자의 능력을 시장에서 검증토록 폐지 결정('11.10월 공생발전형 SW생태계 구축 전략, SW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중)

○ SW기술자 경력관리는 SW업체의 잦은 폐업 등에 따른 기술자의 경력 보호 및 체계적인 경력관리를 위해 필요하며, 발주 및 채용시 기술자의 등급보다 경력을 중시하는 경우도 많은 만큼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을 통해 제도의 활용성 및 편의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.

□ 새롭게 개선되는 신고제를 살펴보면 우선, 현행 제도의 주된 불만사항인 등급산정 문제가 등급제 폐지로 해소되며, 경력입증 절차 간소화 및 수수료 인하, 제도 이용자들과의 소통 강화 등 SW기술자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였다.

< SW기술자 신고제 주요 개선내용 >

구 분		내 용
규정 정비	등급제 및 경력인정기준 폐지	·SW산업진흥법시행령 제1조의2 별표 및 고시 개정
	서식 개선	·경력증명서에서 등급 삭제 ·경력증명서에 미확인된 경력(증빙불가)도 표기하여 발주자 등 이용자가 판단
	수수료 인하	·수수료 항목 축소(5→3개) 및 요금 대폭 인하
서비스 강화	증빙서류 간소화	·주요 증빙서류를 경력관리기관이 직접 확인
	부가혜택 제공	·인력중개 및 경력상담 서비스 등 제공
	사용자 편의 증대	·경력관리 홈페이지 기능 개선
	경력관리 활성화 캠페인	·신고자의 수수료 부담을 이용자 부담으로 전환 유도 ·경력확인의 온라인화 유도
소통 강화	운영현황 공개	·제도 운영현황 공개 및 교육홍보 강화 ·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 개선점 발굴

○ 본 개선안 중 등급제 폐지 등 규정 정비 사항은 SW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후 금년 11월 24일부터 시행되며, 경력관리기관의 서비스 강화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.

□ 이와 관련, 지식경제부는 SW산업협회와 함께 6.29(금) 10:00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SW기술자 신고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.

별첨1 : SW기술자 신고제도 개선방안
별첨2 : SW기술자신고 제도개선 설명회 개요

별첨1 SW기술자 신고제도 개선방안

Ⅰ 규정 정비

○ 등급제 및 경력인정기준 폐지(시행령 제1조의2 별표, 고시 제9~11조)

○ 서식 간소화 및 개선 (시행규칙 제13조 별지서식)

* 등급 폐지에 따른 일부서식 폐지(신고제관련 8개서식 중 3개) 및 개정(경력증명서에서 등급삭제)

* 경력증명서에 미확인된 경력(증빙불가)도 표기하여 발주자 등 이용자가 판단

* 신고 처리기간 단축(7일 → 5일)

○ 수수료 인하 (시행규칙 제13조 별표)

신청내용	수수료(원)		비고
	현행	조정	
1. SW기술자의 경력등록	30,000	25,000	최초 신고 시
2. SW기술자의 경력관리	연 10,000	연 5,000	최초 면제, 이후 선택
3. SW기술경력증 갱신·재발급	10,000	-	등급제폐지로 발급종료
4. SW기술자 경력변경	5,000	-	2번(경력관리)으로 일원화
5. SW기술자 경력증명서 발급	1부당 5,000	1부당 2,000	

Ⅱ 서비스 강화

○ '행정정보공동이용'을 통한 증빙서류 간소화

* 행안부(공유체계구축과)에서 정보이용 심사 중이며 빠르면 연내 시행가능

* 증빙서류 8종에 대해 경력관리기관이 직접 확인하여 증빙 간소화

· 폐업(폐업사실증명, 휴업사실증명), 근무(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, 국민연금자격득실확인, 병적증명), 학력(학점은행제학위증명), 자격(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), 기타(외국인등록사실증명)

○ 경력관리기관의 부가혜택 제공

* (인력중개 서비스) 신고한 기술자 중 구직을 원하는 사람에 대해 알선, 검증된 기술자와 사업자 간의 연계로 구직/구인 비용 절감

* (경력상담 및 맞춤형 교육·세미나·자격증 안내) 신고된 Data를 기반으로 부족직무, 인기직무 등에 대한 Career Path 권고 및 Career에 적합한 교육정보 제공

○ 사용자 편의 증대

* (Call-Back 서비스) 주요 서비스 불만사항인 상담전화 불통 개선을 위해 기 도입한 CTI(Computer Telephony Integration) 기능 지속 활성화

* (경력관리 홈페이지 기능개선) 직관적이고 단순하게 구성하고 각종 통계 및 관련자료를 제공하여 사용자의 편의성 제고

○ 경력관리 활성화 캠페인

* (신고자의 수수료 부담을 이용자 부담으로 전환 유도) 이직 등 본인이 필요한 경우는 기술자 부담, 입찰 등 기업이 필요한 경우는 기업 부담토록 홍보

* (경력확인의 온라인화 유도) 신고자가 기업으로부터 근무경력 확인서를 발급받아 우편으로 경력관리기관에 송부하는 것을 기업의 온라인 확인으로 갈음

Ⅲ 소통 강화

○ 운영현황 공개

* 신고 현황 등 관련 통계 및 분석 자료를 반기별 게재

○ 개선된 경력관리제도 홍보·교육 강화

* SW분야 협회(SW산업협회, 정보산업연합회) 및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활용하여, 기술자, 사업자, 발주자 대상 설명회 개최('12.6월, 서울)

* 사업대가기준 교육(서울, 대전, 대구, 광주, 부산 등 20회 개최, '12.5~11월) 및 우수국산SW 설명회(매월 개최), 임베디드 클럽(7~8월 개최) 등 개최 시, 제도 설명

○ 주기적 설문조사를 통해 서비스 개선점 발굴

별첨2 **SW기술자신고 제도개선 설명회 개요**

□ 목 적

○ 『SW기술자 신고제도』의 개선사항에 대한 설명 및 향후 운영계획 안내

□ 개 요

○ 일 시 : ‘12.6.29(금) 10:00~11:10

○ 장 소 : 한국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실 (서울시 역삼동 소재)

○ 참석대상 : SW기술자, SW업계 및 발주자 등 180여명

○ 참 가 비 : 무료

□ 일 정

시 간	내 용	비 고
10:00	개 회	
10:00~10:05 (‘5)	인사말씀	지경부 SW산업과장
10:05~10:45 (‘40)	SW기술자신고 제도개선 설명	SW경력관리기관 (SW산업협회)
10:45~11:05 (‘20)	질의 응답	참석자
11:10	폐회	